

군산시, 부실 시공 하수관거사업 대책 마련

정화조 1605개 부실...5월까지 보수 완료 분뇨수거료 부당 편취 의혹엔 수사 의뢰

전북 군산시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산시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군산시는 25일 "부실시공 민원이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이다.
민간업체가 총사업비 708억원을 100% 부담하는 대신 중공일로부터 20년간 시행사에 임대운영하도록 하고 임대료·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 등이 지난해 하수관거(총길이 114km) 구간의 정화조를 전수조사

를 벌인 결과 정화조 5049개 중 31.8%에 달하는 1605개가 허위이거나 축소되고 심지어 시공하지도 않는 등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1605개 중 72%를 보수 완료했고, 나머지는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 3명은 전복도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아울러 "공사비에 포함된 분

뇨수거료를 시공사와 수거업체가 건물주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민원에 대해선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혹이 있을 때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된 데 대해 시민께 죄송스럽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모든 사업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공무원들의 음악재능 지켜봐주세요”

군산시청 락밴드 '트위터' 27일 콘서트

군산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인 밴드 '트위터'가 27일 오후 7시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무대에서 락콘서트를 개최한다.
2개팀 15명으로 구성된 트위터 밴드(사진)는 지난 2010년도에 결성해 지역 내 각종 축제와 행사에 물론 사회복귀 관련 공연 등에서 활약한 바 있다.
트위터 밴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 예술 발전에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28일 열리는 2013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홍보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특히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트로트, 7080음악, 락, 발라드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음악이 연주되며 댄스팀 공연, 경품추첨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트위터 밴드 관계자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통해 봉사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인 봉사정신에 개인이 가진 재능을 더해 지역사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재경장학숙 착공

지상 5층 규모 연말 완공...내년부터 입학생 모집

남원시민의 숙원이자 재경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될 남원 애향장학숙이 25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돌입했다.
남원 애향장학숙은 오는 연말 준공해 내년부터 입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상근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장, 이완주 남원시장, 김성범 남원시의회 의장, 강동원 국회의원, 이춘호 재경향우회장 및 시공사인 태지종합건설(주) 박원석 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 공사 진행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2가 65번지에 들어서는 남원 애향장학숙은 향우기업인 (주)태지종합건설이 공사를 맡는다.
남원 애향장학숙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2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반경 3km이내에 13여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지적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 애향장학숙은 부지 966.60㎡



(2992평)에 건축면적 366.74㎡, 연면적 1,964.5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34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조감도)
25여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금모금에 현재 21억9100여만원이 담긴 상태다.
이완주 시장은 "애향장학숙은 남원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의 산실로 남원을 대표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며 "찬란한 남원을 향한 출발점이자, 새로운 교육의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젖소야 많이 먹어라” 유·아동복 전문업체가 24일 마련한 고창 상하목장 체험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젖소에게 건조주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희뉴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9일간의 화려한 여정

46개국 190편 작품...'불거리·이벤트' 풍성

'독립·예술영화의 축제'인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25일 오후 막을 울리고 9일간의 화려한 여정에 들어간다.
방송인 전현무와 배우 강예원의 사회로 열릴 개막식은 개막공연과 송하진 전주시장의 개막선언, 심사위원 소개, 개막작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한국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을 비롯, 배창호, 이장호, 정지영 등 한국 대표 감독, 이진우, 이상우, 강진아, 백승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으

로 참여한 다레잔 오미브베프와 도프레드릭슨, 로랑 캄테, 카를로 사트리안 등 해외 영화계 인사들도 영화 마니아들과 관객을 만난다.
개막식에 앞서 배우 최원영, 김서형, 배슬기, 한주완, 조윤희, 이희준, 이영진, 김민기, 한보배, 이준, 소이, 김소연, 강신호 등 젊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는다.
이번 영화제는 5월3일까지 전주시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영화의거리 극장가 등 13개 상영관에서 진행된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인도 등 46개국 장편영화 117편과 단

편영화 61편, 이벤트 상영작 12편 등 모두 190편이 경쟁부문과 시네마 스키테이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스크린에 오른다.
개막작으로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로랑 캄테 감독의 '폭스파이어'가, 폐막작은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감독인 하이파 알 만수르의 첫 장편영화 '와즈다'가 상영된다.
고석만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독립·예술영화 가운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가진 작품을 주로 선정했다"며 "영화의 도시 전주를 찾아 재미있는 영화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사업 추진

순창군 20억 들여 내달 착공

순창군은 25일 "초대 대법원장으로 한국 사법의 초석을 닦은 가인 김병로(1887~1964) 선생의 생가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들여 추진되는 생가 복원사업은 부흥면 중리마을 일원 2582㎡ 부지에 안채, 사랑채, 관광객 쉼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군은 기본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안채·행랑채 복원사업을 다음달 착

공, 내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가인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항일 변호사로 민족정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광복 이후 9년3개월 동안 우리나라 초대 및 2대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등 민족사에 큰 획을 그었다. 군은 가인선생 생가복원사업과 연계해 '법이 꽃피는 마을이야기'라는 테마별 조형물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 마실축제에 오세요”

내달 4일 변산해수욕장 일대 걷기대회

부안군은 25일 "제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인 다음달 4일 변산해수욕장 '사랑의 낙조공원' 주차장 광장에서 부안마실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간 정과 사랑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탐방코스는 마실길 코스 중 가장 인기 높은 변산해수욕장~고사포해수욕장(7km) 구간이다. <사진> 특히 출렁다리, 전망대, 해안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데크다리 등이 설치돼 있어 색다른 체험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변산마실길 주관으로 7080라이브 음악공연, 마실길 먹거리 쉼터운영, 추억에 흔적남기기, 마실길 풍경화 전시, 마실길 3행시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희망의 해**

남원시의회
http://council.namwon.go.kr

사랑의 축제, 자연의 축제가 어우러진 남원!

남원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제83회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2013. 4. 26(금) ~ 4. 30(화)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

제19회 **지리산운봉바래봉 철쭉축제**

2013. 4. 27(토) ~ 5. 26(일)
지리산 바래봉 및 허브밸리 일원